

여수는 '복지 풍년'…올해 예산의 30% 쓴다

통합보훈회관 등 11개 사업 2348억 사상 최대

전남도는 농어촌 보건인프라 확충 129억 투입

여수시가 올해 복지분야에 사상 최대의 예산을 투입하고 전남도가 농어촌 보건인프라 확충에 나서는 등 복지예산이 풍년을 맞고 있다.

12일 여수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7939억원의 총 예산 가운데 29.6%인 2348억원을 사회·복지분야 예산으로 편성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5.2%인 431억원이 늘어난 액수로 사상 최대 규모다.

주요 사업은 6개의 신규사업과 5개의 이월사업 등으로 나뉜다.

광양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 촉구

전남 동부권의회 의장협의회

전남 동부권의회 의장협의회가 광양 백운산의 국립공원 지정을 촉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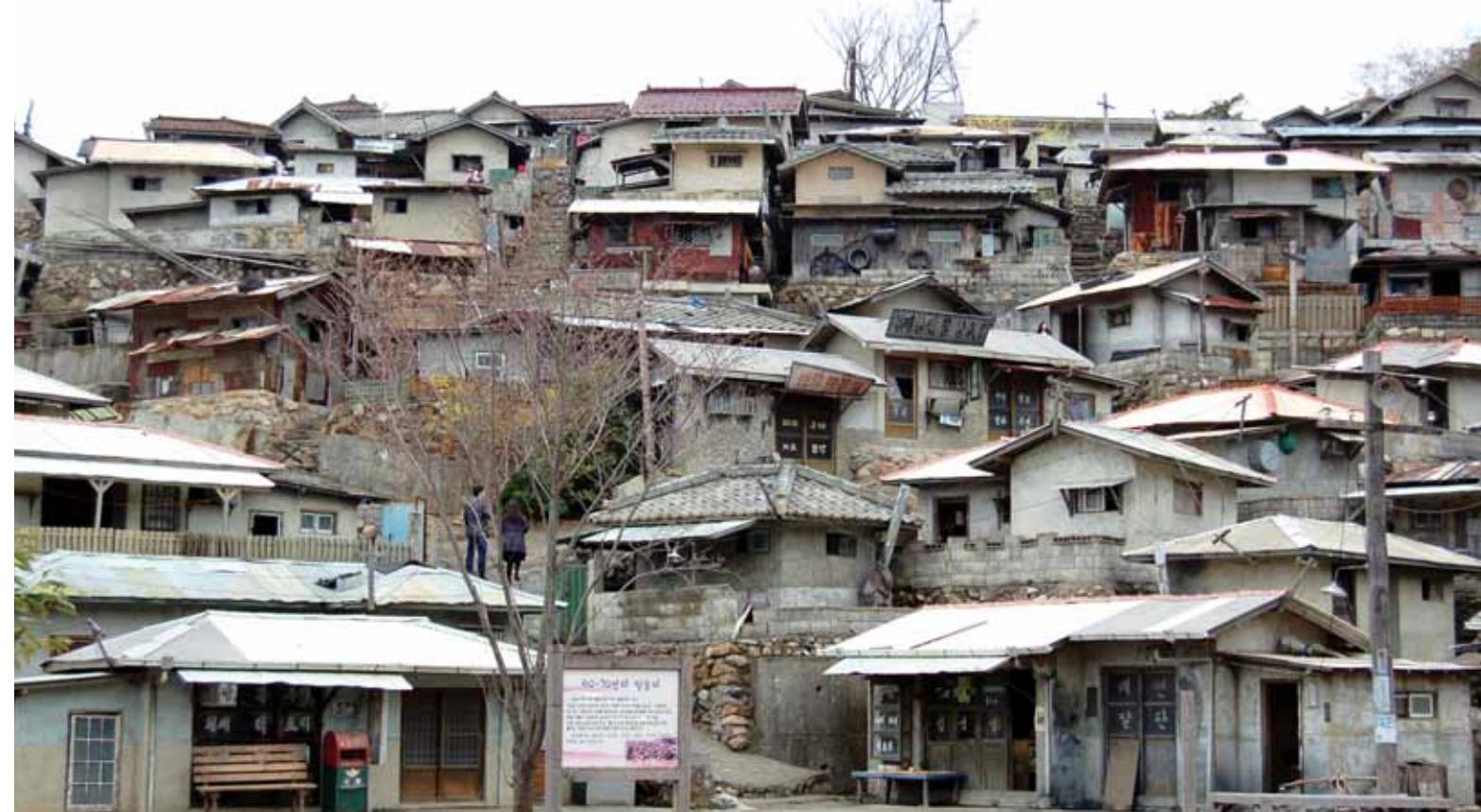
광양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0일 광양시의회에서 여수·순천·광양시와 고흥·보성·구례·곡성·담양·장성군 등 9개 시·군의 의장이 제9차 전남 동부권의회 의장협의회를 열고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 절차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참석자들은 건의문을 청와대, 기획재정부, 교육부, 환경부 등 관계기관에 보내기로 했다.

건의안 채택은 지난 7일 광양시와 구례군 대표가 함께 모여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을 위한 '광양시·구례군 공동협력'을 결의한 이후 이어진 공동연대 대응이어서 주목된다.

김대희 전남도 동부권의회 의장협의회 회장(순천시의회 의장)은 "주민들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힘써 주신 노고에 감사드리며 그동안의 활동을 점검하고 새로운 도약과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역량을 모아나가자"고 말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달동네? 여기는 순천 드라마 촬영장

순천시가 2005년 순천시 조례등 4만㎡의 터에 조성한 드라마 촬영장 전경. 1950~1970년대를 배경으로 순천 읍내거리, 서울 범우리, 달동네 등을 갖춘 이곳이 15일부터 방영되는 KBS2-TV 수목 드라마

'감격시대'의 주 촬영지로 활용되는 등 다시 인기를 끌고 있다.

(순천시 제공)

전남도, 특성화고교생 '선취업-후진학 프로젝트' 성과

20여명 조선소 등 취업

발된 우수 학생들이 다음달 말까지 대불산학융합본부 등에서 직무교육을 마친 후 협약을 체결한 대한조선, 정원엔지니어링 등 지역 중견기업 등

전남도는 도내 특성화 고교생 20여명이 선취업-후진학 프로젝트에 따라 도내 조선소 등에 취업했다고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특성화 고교에서 선

아독을 하는 셈이다.

이번 첫 과정에는 영암구립공고, 목포공고 등 7개 고교에서 22명이 선발됐다.

고교생 선취업-후진학 과정은 수준 높은 직무교육 선행함으로써 업체들의 고교 졸업생 기파현상을 해소하고 지역 내 일자리 창출, 종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등 일거양득의 효과가 기대된다.

이 프로젝트에 대기업과 우수 중견업체 등이 참여해 우수학생 특성화하고 선호-취업-우수학생 입학 등 선순환 모델이 구축될 전망이다.

전남도, 대불산학융합본부, 목포대, 대한조선 등 기업체 등은 최근 대불산학융합지구 고교생 선취업-후진학 과정 협약을 체결했다.

/영암=대성수기자 dss@kwangju.co.kr

[국내개발, 국내생산] 특허 제10-2013-0103125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23년
가발명가!

타사제품 A/S
및 관리 환영



M.H.타사
130
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신제품 100%
59
만원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입 X, 핀 X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상가 12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재 011-607-5330



담양·강진 맘껏 알리세요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캐릭터·문화상품 개발



담양군 캐릭터 '팡고'

(제)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담양과 강진을 알리는 홍보용 캐릭터와 문화상품을 개발했다.

진흥원은 문화콘텐츠 상품 개발 및 보급사업의 하나로 지난해 6월부터 개발에 나서 최근 완료 했다.

문화콘텐츠 상품개발 사업은 지역에 보유한 전통예술과 자연, 역사 등 숨어있는 문화관광 자원을 해당 자체와 연계한 캐릭터와 문화상품으로 개발하고 보급하는 사업이다.

지난해부터 '해남 이크누스 우황리엔시스' 공룡화석 캐릭터 및 문화상품 개발에도 나서고 있다.

진흥원은 한국 현대문화사에 큰 자취를 남긴 영랑 김윤식 선생의 대표작 '모란이 피기까지는'을 모티브로 '시봉' '호야' 등 캐릭터와 이를 활용한 문화상품을 개발했다.

담양군은 대표 관광자원인 대나무 소재를 활용한 '팡고' '다미' 등 캐릭터를 만들었다.

강진군은 이 캐릭터와 문화상품을 시문학과 기념관 내에 전시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구례에 80억 투입 귀농인 창업지원센터

구례에 귀농인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가 들어선다.

전남도는 "구례군에 사업비 80억 원을 들여 귀농인 교육과 창업을 위한 체험장 등을 갖춘 농업창업지원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 센터는 귀농인들이 1~2년간 거주하면서 영농 체험과 기술습득, 공동체 생활방식 체험 등 안정적으로 능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게 된다.

구례 응방면 응강리에 들어설 센

터에는 친환경농업 시험장을 비롯해 주택, 농밭 30㏊, 공동실습농장, 시설 하우스, 영농교육관 등이 마련된다.

전남도는 이 센터가 건립되면 귀농인 유통과 안정적인 정착 등 새내기 농업인 인큐베이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남도는 전국 최고의 깨끗한 환경과 전국 최다 친환경농산물 생산 지역의 장점을 살려 귀농인 유통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전남도립대, 경찰경호학과 학사과정 설치

2년제 전문대론 전국 처음

교육 방식도 기존 틀에서 벗어난 일대일 맞춤식 교육을 할 계획이다.

학생들의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전일제 수업을 시행하는 등 직장인에게도 교육의 기회를 줄 방침이다.

구충곤 총장은 "경찰경호분야에서 어디에 내놓아도 경쟁력이 있는 학과로서의 면모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김재근기자 jjg@kwangju.co.kr